

개그맨 김진수?... 이젠 잘나가는 '뮤지컬 스타'

1971년 태어난 개그맨 김진수는 용산고와 서울예술전문대학 연극과를 졸업했다. 1995년 MBC 공채 6기 개그맨 출신으로 1995년 MBC '젊음의 다섯마당'에서 데뷔했다. 여러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약한 그는 MBC '오늘은 좋은 날'에서 이윤석과 함께한 립싱크 개그 '허리케인 블루'로 큰 인기를 얻었다.

김진수는 "MBC 특채 개그맨이 됐지만 2년 동안 무명 생활에 지쳐 개그맨을 그만 두려는데 허리케인 블루 출연 제안이 와서 그만두는 겁에 해 보자 한 게 잘됐다"고 밝힌 바 있다.

허리케인 블루에 관해서는 뜻밖의 탄생 비화가 있다. 김진수와 이윤석의 기획이 아니라 PD의 기획이었고 추석 특집 프로그램에서 단 2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급조된 개그였다. 김진수와 이윤석은 1주일에 1곡을 매일 연습하고 퍼포먼스·음악편집 등 모든 것을 직접 하며 열정을 쏟았고



성공적인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이후 '테마게임' '아기씨와 아줌마 사이' 등 MBC 코미디단극에서 코미 연기를 주로 했으며 2000년 '목표 달성! 토요일'의 코너 중 하위권 고등학생들을 모아 공부시키는 프로그램인 '목표 달성! 팔자 탈출'을 맡아 MC로서 입담을 뽐내기도 했다. 연기자로 활동 영역을 넓혀 드라마 '웃어

라 동해야' '말이 꽃할배 수사대' '산남어 남촌에는 2' 등과 영화 '중2라도 괜찮아' '마마' 뮤지컬 '삼총사' '진짜 진짜 좋아해', 그리고 연극 '취미의 방' 등 다양한 작품에서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였다.

2018년 KBS 쿨FM '김승우 장항준의 미스터 라디오'의 특별 DJ로 출연해 여전한 입담을 뽐냈다. 같은 해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오랜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쳤으며 KBS 2FM '미스터 라디오'를 영화감독 장항준과 함께 4개월 동안 공동진행하기도 했다.

2022년에는 영화 '나를 죽여 줘'의 제작을 맡았다. 최익환 감독과는 영화 '룸(rooom)'을 함께 하는 등 인연이 있어 가까이 참여했다.

이 영화는 웰메이드 연극 '킬 미 나우(KILL ME NOW)'를 원작으로 한다. 선천적 지체장애를 가진 아들 '현재'와 유명 작가였지만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

'민석'이 서로에게 특별한 보호자가 되어 주는 휴먼 힐링 드라마다.

국내 개봉 전부터 시드니월드필름페스티벌 최우수 서사 장편영화상·뮌헨필름페스티벌 최우수 장편영화상·부다페스트독립영화제 최우수 장편영화상·암스테르담독립영화제 최우수 서사장편영화상·오슬로 국제영화제 최우수 외국영화상·더난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안승균)·각본상 등 전세계 국제 영화제에서 7관왕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4월 장항준 감독의 리바운드에서 제작자 겸 부산중앙고 교감 역으로 출연한 김진수는 오랜만에 뮤지컬로 돌아왔다. 올해 3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 중인 뮤지컬 '맘마미아'에서 빌(BILL) 역을 맡고 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여수에서 공연이 열리고 내달 부산·대구·안동에 이어 내년 1월 초 울산에서 공연이 이어진다.



김진수 개그맨·뮤지컬 배우

'맘마미아'는 엄마 도나와 딸 소피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엄마와 딸의 사랑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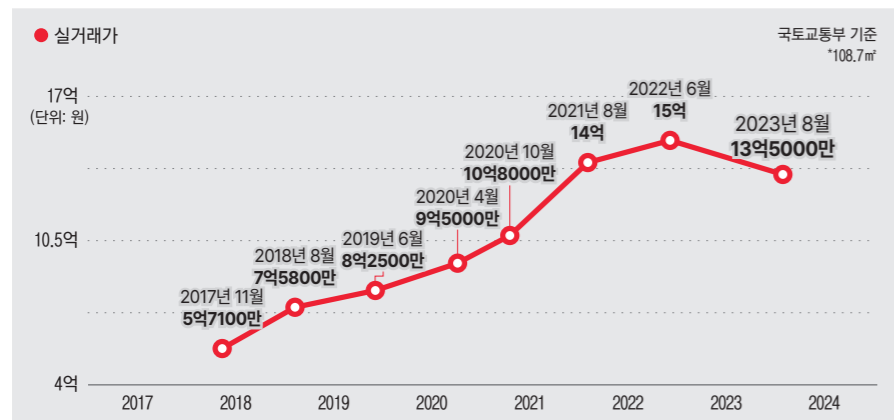
계적인 팝 그룹 아바의 대표 히트곡 22곡으로 함께 엮여 나가는 작품이다. 빌은 도나의 결혼을 앞둔 딸 소피가 엄마가 결혼 전 쓴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예상해 엄마 이름으로 결혼식에 초청하는 인물 중 하나다. 이후 유쾌한 해프닝이 전개되며 극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한편 김진수는 서울 성동구 소재 S아과

트(사진)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공급면적 151.9㎡(약 45.79평)·전용면적 117.13㎡(약 35.43평) 규모로 2015년 5월 9억6500만 원에 매입했다. 현재 나온 매물들은 29억~30억 원 수준의 호가를 보이지만 적정 시세는 20억 중반대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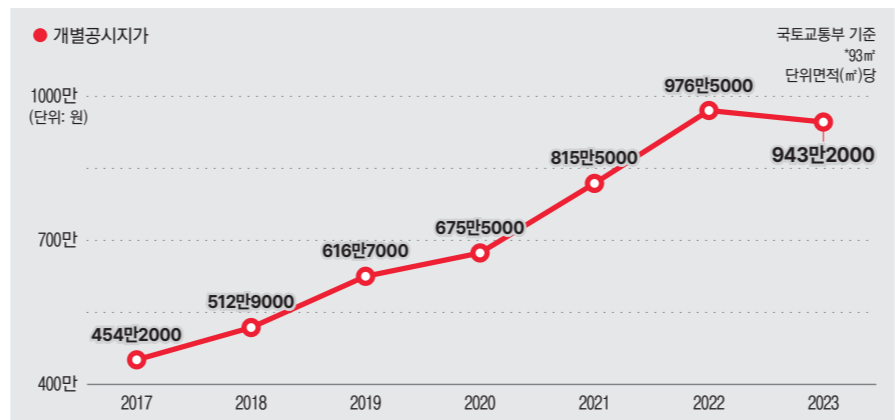
이 아파트는 도시철도 2호선 성수역과 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성수동 카페 거리와 서울숲 강공원 등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좋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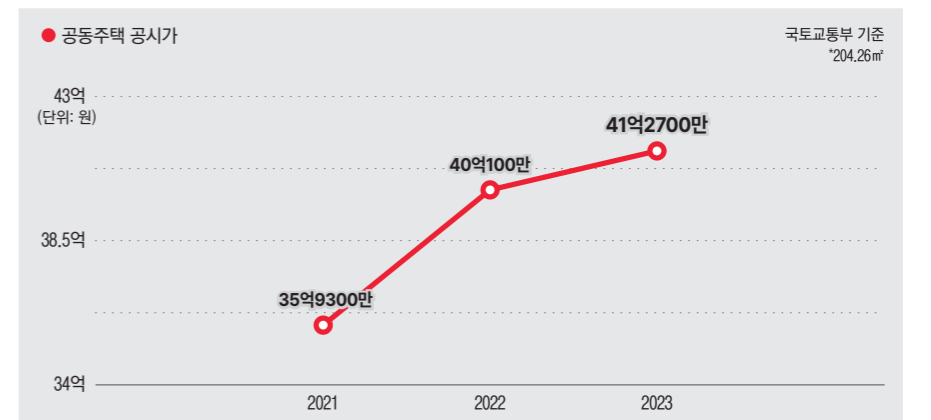
성수대우2차(서울 성동구 성수동)



빌딩(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서울포레스트(서울 성동구 성수동)



조용찬 전IBK시스템 대표이사

조용찬 전 IBK시스템 대표이사는 동국대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했다. 1975년 기업은행에 입사해 약수동지점장·IT금융개발부장·정보보호센터장을 거쳐 2012년 기업은행 IT본부 부행장을 지냈다. IT본부장 재임 시절 기업은행 포스트 차세대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IBK시스템 대표이사에 취임 후 2년 동안 IBK신용정보·DGB캐피탈·에이온캐피탈 등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포스트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한창이던 때 주사업자였던 삼성SDS가 빠져나서 참여 직원들이 동요했다. 이에 조 전 대



표는 직접 다른 개발사들을 설득하는 등 노력한 결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인력의 경쟁력을 중요하게 생각해 외부 영입보다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썼다. 일례로 직원들이 스타디 그룹을 만들어 인공지능과 스크래핑 등 혁신 기술에 대한 자체 역량을 높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스크래핑 기술을 독자적인 기술로 사업화했다.



계한희 현패션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계한희는 1987년 태어나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예술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입학자 중 가장 우수한 최종 5명 중 선발돼 2011년 F/W 런던 패션위크로 데뷔했다. 이때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KYE(카이)'를 론칭했다. 이후 2012년 뉴욕과 서울패션위크에서 컬렉션을 선보였고 미국의 패션디자이너 제레미 스콧과 아디다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 2013년 한국 패션 디자이너 협회(CFKD)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고 2014년에는 국내 디자이너 중 유일하게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프라이즈(LVMH Prize) 파이널리스트



에 진출했다. 2016년 세컨드 브랜드 '아이아이(EYEYE)'를 론칭했고 2017년 울마크 프라이즈 아시아 지역 여성복 부문에서 우승했다. 이 밖에 국제패션전시대회 이미징 텔런트상(2012)·제7회 코리아패션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2014) 등 여러 상을 수상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 '계자이니 kkye'에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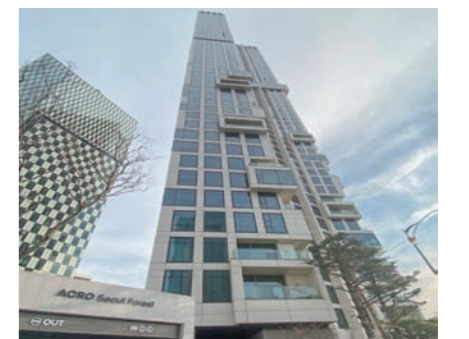


김동률 현가수

버클리 음대 작곡과 출신인 김동률은 연세대 재학 시절 1993년 동창 서동욱과 2인조 그룹 '전람회'로 MBC 대학가요제에 출전해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데뷔 4년 만에 그룹 '전람회'가 해체된 후 가수 이적과 '카니발'을 결성해 '거위의 꿈' 등 앨범을 발표했다. 대중들이 김동률은 중저음에 특화된 가수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적' '세' 등 고음이 필요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또한 꾸준한 음악 활동과 달리 방송에 장기간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어 데뷔 후 줄곧 '인비주의 콘서트'를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콘서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도 유명해 지휘·편곡 등을 직접 챙겨 질 높은



콘서트가 나온다는 평가다. 음악에 몰두하며 진정한 뮤지션으로 거듭난 김동률은 2019년 앨범 '여름의 끝자락'을 발표한 이후 기존 앨범을 리마스터링해 내놓고 있다.



맛있는 우리동네 부동산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신축 완화... 상업·주거지 확대

서울 양천구

서울시는 21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은 상업기능 및 주변 주거지 주변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원로변에 계획되었던 특별계획 1~4구역은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로써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5구역으로 전환된다.

특별계획5구역은 두 번의 설문조사 결과 구역 해제보다 유지에 대한 주민 수요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서울시

가 높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며 통합개발과 분리시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 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 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 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간선변의 경우 당초 60% 이하였던 주거 비율을 90% 이하로 확대했으며 간선변과 이면부에 계획되었던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개발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으며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과도하게 묶여 있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규제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신원로와 남부순환로 변은 최고 70m 이하, 중앙로 변은 최고 100m 이하로 높이 계획을 완화했으며 4층지 이상 또는 가구단위 개발 시 용도지역별 허용 용적률 최대값을 부여하도록 개선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향후 균형 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반도체 산단 '도시개발' 활기... 처인구 금싸라기땅으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대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해 3월 정부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배후주거지 역할을 담당할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장기간 표류 중이었던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원을 개발하는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국내 대형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해 신뢰도를 높였고 규모 있는 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용인시청-용인동부경찰서 등 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에 상업·업무 시설과 5000여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처인구 내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입지다. 용인시 처인구에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일대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용인시

선정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삼성전자가 남사읍 일대 개발면적 약 215만 평에 300조 원을,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일대 개발면적 약 126만 평에 12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향후 용인 처인구는 총 341만 평에 420조 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이라는 호재의 영향으로 용인시 처인구 일대 부동산은 들쭉이고 있다. 실제로 용인시 처인구 일대는 올해 3분기 땅

값이 전분기 대비 2.15% 상승하며 해당 기간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교통망이 개선되며 수요가 높아질 예정이라 땅값이 점점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며 "땅값에 인건비와 원자재값이 오르면 이 일대에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